

사건·인물 서술 탈피
문화·생활사 중심으로
일반인 눈높이 맞춰

총 24권 6년완간 계획
“해방이후 불교도 정리”

“역사 바로보기는 삶의 교훈”

이이화씨 '한국사 이야기' 고대사 4권 펴내



“우리 역사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
기를 담고 있어 들여다보면 불수
록 그 가치와 교훈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
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으면서
도 역사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이
해시킬까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평생을 발로 뛰어난 역사학자
이이화씨(61), 10년의 세월을 바쳐
발대한 분량의 한국사를 쓰겠다고
결심한지 4년만에 마침내 첫 결실
을 보았다. 5천년 한국사 전체를
모두 24권에 소화하겠다는 구상이
래 시작한 <한국사 이야기>(한길
사 펴)의 첫머리인 고대사 부분을
4권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혼
자의 힘으로 한국사 전체를 조망
하겠다는 의욕 외에도 그동안 전
공학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역사
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 또 지금까지
의 역사서 대부분이 사건과 인물
중심인 반면, 이 책은 문화와 생활
사를 중심으로 엮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일례로 '속세를 떠난 원효'라는
제목에서 저자는 '원효스님이 왜
속세로 돌아왔는가. 원효는 고답적
인 이른 공부보다는 신라사회의
현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급하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하면서 원효스님의 행적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비춘다.

이씨는 3·4권에서 불교 이야기
를 써내려 간다. 백제 무왕의 미륵
신앙을 통한 백제의 중심적 통일
노력과 원효스님, 석굴암, 팔만대
장경 등에 얽힌 이야기 등등. 우리
역사를 말하면서 불교를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과학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사료를 뛰어 넘어서도

안되지만 사료에 얽매어서도 안된
다. 그래야만 생생한 역사를 기
록할 수 있습니다.” 사료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엄밀하다. 우리가 알
고 있는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
만 해도 귀족세력 약화를 피하기
위한 이야기일뿐 사실은 무예가
뛰어난 평민인 온달을 사위로 삼
았다는 얘기를 꾸민 것이라는 해
석을 내리고 있다.

1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
되었나'는 인류의 발생과 종의 기
원을 다뤘고, 2권 '고구려 백제 신
라와 가야를 찾아서'에서는 신라
가 형성되어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3권 '삼국의 세력
다툼과 중국과의 전쟁'은 삼국의

대립관계와 중국과의 전쟁 및 교
류내용을 소개했으며, 4권 '남국
신라와 북국 발해'에서는 신라에
패망한 고구려 신라의 맥이 발해
와 후삼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각 권마다 80~90컷
의 화보와 사진자료를 실었는데,
특히 각 권 앞부분에는 금동미륵
반가상, 석굴암, 다보탑 등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불교유물 10여점
을 컬러화보로 실었다.

앞으로 출간될 제5~8권은 고려
시대, 제9~12권은 조선전기, 제13
~16권은 조선중기, 제17~20권은
근대, 제21~24권은 일제시기를 다
루게 되며 2003년 완간 예정이다.

“물론 해방이후 비구·대처사옹
까지의 불교 이야기도 쓸 생각인데,
그보다 더 써내려갈지도 모르겠습
니다.” 불교의 미래는 밝지만 아직
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이화씨. 우리 역
사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불교에 대
한 애정도 뜨겁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pia.com)



◇법정스님은 강연에서 책속에 지혜가 있음을 강조했다.

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 출판기념
가난한 삶 주제 특별강연

“독서는 창의력 키우는 지름길”

최근 교보문고 등 주요서점에서 베스트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에는 꽃이 피네>의 저자 법정스
님이 6월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출판
을 기념하는 특별강연을 했다. 8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정스님은 '가난한 삶'을 주제로 강연하
며 “오늘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
서를 통해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창의력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강연요지>

요즘 새삼스레 한국인의 창의력 부족이 거론
되고 있다. 경제도 축국도 창의력이 부족해 국
제사회에서 탈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등
학교에서나 대학에서나 천편일률적인 교육만
해왔지 창의력을 일깨우려는 노력이 없었다. 창
의력을 키우는 데는 독서만한 것이 없다. 독서
는 남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혜를 손쉽게
자기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
즘처럼 바깥세상이 온통 경제의 파도 속에서
갈광질광할 때는 안으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우리 조상들은 독서를 하면서 책장을 넘
기며 내용만을 본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분위기
기, 다시말해 독서를 통해 활자화 안된 역력까지
읽어냈다. 이를 통해 인격을 닦고 창의력을
길렀던 것이다. 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새 책을 읽을 때는 좋은 친구
를 얻는 것과 같고 이미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옛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다. 같은 책도 읽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감흥이 다르다.

오늘의 어려움에 기죽지 말고 우리앞에 다친 시련이 어
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넘치는 물량
에만 현혹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깨달으며 살아야 한
다.

독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살아있는 기쁨을 누
리게 한다. 독서를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옛 선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지혜를 받아 들여
오늘을 산다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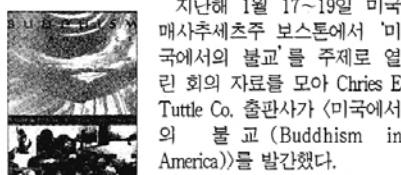
정리=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pia.com)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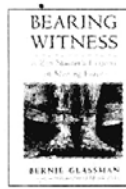
해외신간

미국에서의 불교



지난해 1월 17~1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미
국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열
린 회의의 자료를 모아 Chris E
Tuttle Co. 출판사가 <미국에서
의 불교 (Buddhism in
America)>를 발간했다.
스테판 베켈러, 로버트 서
먼, 리처드 슐, 무성스님 등 미불교계에서 왕성
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8백여명의 불교학자와
스님들이 참여한 보스턴 회의는 인도·티베트의
대승불교, 상좌부 불교, 중국·일본·한국의 선
불교 등의 교리와 수행을 비교·연구했다. 또
동시대 유럽과 북미대륙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서구사회에서의 불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내
용이 정리됐다. (p.p 224, ISBN 0804831521)

인내하는 목격자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평
화롭게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Bell Tower Book 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인내하는 목격
자(Bearing Witness: A Zen
Master's Lessons in Making
Peace)>는 미국에서 눈길을 끌
었던 사건과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불교적 수행이 어떻게 사회의 평
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 “공동체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베린 글래스만은 15년간 동 투부에서
서 불교공동체를 운영해 온 선(禪)수행자.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던 인물로도 널리 알려
져 있다. (p.p240, ISBN 0609600613)

한·일 불교사 왜곡 '똑바로 정리'

최재석 교수 '고대 한일불교관계사' 발간

<고대 한일불교관계사>(일지
사 펴)는 최재석 고려대 명예
교수가 지난 2년여간 이 분야
의 연구 결과인 18개의 논문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일본의 왜
곡된 한·일 불교사를 바로잡
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책이 백제 및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불교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삼은 것은 사찰과
불상, 일본 고대불사(古代佛
寺)를 비롯해 법흥사, 동대사,
일본 고대불상과 금동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7~8세기
에 일본은 불교의 사상과 예술
성이 담긴 불상을 만들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기술
전과 과정처럼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스스로 이갈
은 문화재를 만들었을 것이라
는 논리의 전개방법은 마땅히
지양해야만 올바른 불교역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
고 있다.

한명우 기자



경주유적 용어풀이 “...한영한사전” 출간

성낙진씨(경주병원 가정의학과
장)가 펴낸 <경주 이해를 위한 한
영한(韓英韓) 사전>(신라문화원
판)은 경주에 소재한 유물·유적과
불교, 고고학, 역사분야의 중요 용
어 1천2백여어를 영어와 우리말로
설명한다.

이 책은 또 부록으로 불상 및 석
탑, 부도, 범종, 목조건물, 석등 등
에 대한 세부 명칭도와 함께 수인
의 종류도 설명해 놓고 있어 불교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일
반인들이 참조하기에 유용하다.

한명우 기자

붓다가 가르치지 않은 것

팀 워드 지음

철학자와 법학도의 구도 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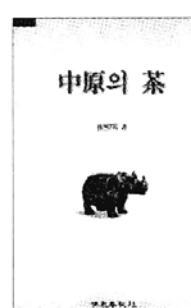
신비적이고 온건한 철학자 '팀'과
이성적이고 냉소적인 법학도 '짐'
은 서로 대립하며 존재의 근원적 물
음에서부터 불립문자의 의미 등을
파고든다.

캐나다 작가인 저자의 자전적 구
도소설인 <붓다가 가르치지 않은 것>
은 '깨달음이란 누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는 것도 아
니다'는 모호한 화두를 던져 놓고
독자들이 직접 그 해답을 얻도록 요
구하고 있다. <드림북스, 8천원>



차의 역사 알면 '禪茶一如' 보인다

차의 역사 알면 '禪茶一如' 보인다



20년간 중국을 답사하면서 얻은 지
식과 기록을 토대로 지금까지 잘 알
려지지 않았던 중국차를 망라한 <중
원의 차>는 차의 역사를 알고 나면
차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짐을 느
끼게 한다. 중국 불교 사상 처음으로
사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보타불차'
등 각종 차의 종류와 그에 얽힌 이야
기들도 재미있지만, 송나라 황산곡의
'가람현(伽藍軒)' 등의 다시(茶詩)들
은 차와 선이 둘이 아님을 새삼 일깨
워 준다. <불교춘추,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예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동쪽나라
2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예시아문
3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원	예시아문
4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5	성지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을순	신우당
6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란자	세훈출판사
7	가슴을 찌르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족사
8	집초는 없다	윤구병	보리
9	참선교육	현담	수업출판사
10	밀교강좌	혜정	출판시대

구입문의:(02)737-0695

예시아문의 책들은
수행하는 불자들의 도반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주머니속 대장경 101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86 변형 246쪽/ 값 5,500원

20C의 창조자, 현상 문명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숭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의 작품 전연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그가 체득한 불교 교리의 핵심!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주머니속 대장경 201



티베트의 학승 초펠 스님이
한국말을 배워 직접 편역한
티베트인들의 수행지침서 '보리도차제'

초펠 스님 편역
86 변형 178쪽/ 값 4,000원

삼사도(三士道)에 따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투철한 믿음과
기초 수행을 더 중시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인들의 심세 인과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절대적 신앙은

생할원경과 사고방식이 확연히 다른 우리 불자들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주머니속 대장경 502



획일적인 교육으로 갖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장,
그 해결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김종서 지음
86 변형 182쪽/ 값 4,500원

눈높이 교육의 처음이라 할 '대기실법',

'현상현유아무독론'으로 밝혀 놓은 인간의 절대적 가치 존중

이러한 교육관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 이 땅에 정착되어 갈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야말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형의 교육관인 것이다